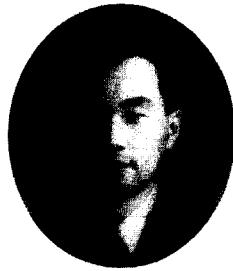


SPIE's 1997 Annual Meeting 학술대회를 다녀와서



박 성 찬

단국대학교 물리학과

올해 SPIE 연례학술회의(The Annual International Symposium on Optical Science, Engineering and Instrumentation, 이하 SPIE Annual Meeting)는 1997년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미국 California주, San Diego에서 개최되었다. 대부분의 SPIE Annual Meeting은 7월 말쯤에 휴양도시로 유명한 San Diego에서 열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필자는 1995년 7월에 제 40회 Annual Meeting에 참가하여 연구논문을 발표함으로써 사실상 첫 발을 디딘 셈이다. 이후 1996년에는 SID(Society for Information Display)에 참가를 위해, 그리고 1997년은 42번째 맞이하는 본 학술대회를 참관하기 위해 San Diego를 방문하였다. San Diego에 올 때마다 필자의 가슴에 와닿는 것은 도시 특유의 풍부한 일조, 화창한 날씨, 그리고 온화한 기후에 뚝 빠져든다. SPIE 학술대회가 열린 San Diego Convention Center는 Coronado 해안을 끼고 있으며, 해안 가까이에서는 요트들이 분주히 물살을 가르는 광경을 흔히 볼 수 있다. 필자는 총 2주 일간 미국에 체류했는데 첫주는 본 학술대회에 참가하였고, 이후에는 Arizona 대학의 Optical Sciences Center, 그리고 회절광학소자(Diffractive Optical Elements)의 메이커인 Donnelly사를 각각 방문하였다.

이번의 SPIE Annual Meeting에 참가한 등록자 수는 약 6100명 정도였는데 이중 technical session에 관련된 인원은 4800명, 나머지 1300명 정도는 전시회(exhibits)에 관련된 참석자들이었다고 한다. 발표된 논문은 65개의 conference technical program을 통해, 약 2600편이었다. 논문발표 형식은 초청논문, 구두발표논문, 포스터발표논문으로 구성되었고, 이외에도 광기술에 관련된 약 70여개의 short courses가 있었다. 본 학술대회를 통해 이와 같이 많은 논문이 발표된 것은 이 학회의 논문수락률이 높은 것도 이유 중 하나지만, 무엇보다도 optical science에서 engineering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많은 invited talk로 인해 저명학자들이 많이

참여하여 그 수준이 높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사실 필자는 본 학술대회기간 중에 훌륭한 업적을 남긴 학자들과 교류를 할 기회를 갖었다. 또한 252개의 회사들의 기술과 상품들로 부스를 꽉 채운 상품전시회(exhibit)를 통해 현재 및 미래의 광학기술을 체험하고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본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분야를 간단히 소개하면, astronomical optics, sensors; optical materials; zoom lenses and other topics in applied optics; x-ray laser; remote sensing, infrared instrumentation; imaging through the atmosphere; signal and image processing; plastic optics 등이다. 다양한 technical session 중 필자가 큰 관심을 갖고 들은 것은 precision plastic optics 및 응용분야, diffractive structures, 그리고 optical design 이었으며, 위 session이 진행되는 동안 몇 개의 아이디어를 얻기도 했다.

한낮의 활기찬 학술대회도 오후 5시가 넘으면서 convention center는 썰렁해지면서 한국음식점이 모여있는 Convoy Street 주변은 한국에서 온 인파들로 북적대기 시작한다. Convention center 및 음식점에서 만난 분들은 대부분 논문발표를 위해 온 author들로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ETRI, KAIST, 서울대, 연세대, 단국대, LG전자, 삼성전자 등 많은 기관에서 본 학술대회에 참가하였고, 또한 훌륭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SPIE Annual Meeting은 광학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접할 수 있다는 것과 현재의 광기술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논문 및 exhibit를 볼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이는 또한 학술적, 교육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 학술대회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훌륭한 학술대회에 많은 한국인들이 참가하고 활동함으로써, 국내의 학술대회도 같이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998년 SPIE Annual Meeting(43회)은 내년 7월 19일부터 24일까지 San Diego에서 개최될 예정이다.